

2026.08.30.(주일) 열왕기하 23:31-35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김양재목사님(2부)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31.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삼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32.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3.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립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34.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아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35. 여호아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드디어 유다 왕을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주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석 달 전 5월 말에 뭐 하셨어요? 그때 무슨 걱정하시고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돌아보면 엇그제 같은데 그냥 여름 한 번 다 지나갔을 뿐인데, 네, 오늘 본문에서는 딱 그만큼의 시간에 몇백 년 내려온 한 나라의 운명이 뒤집혔어요. 전무후무한 개혁의 왕 요시야를 장사하고 석 달이에요. 그 아들은 남의 나라 땅에 묶이고 애굽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계절 만에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종처럼 살아갑니까? 성경은 그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불러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오늘 제목이에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종 되었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종의 집으로 도로 잡혀갑니다. 그냥 딱 석 달이면 되더라고요. 오늘 잡혀가는 본문이 세 가지 모습을 보여 줍니다.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첫째,

1. 세상의 손에 붙들려 삽니다(31-33절)

31절, 32절이에요.

31.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삼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왕하 23:31

3개월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던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32절을 보면,

32.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왕하 23:32

입니다.

성군 요시야 왕이 하루아침에 전쟁터에서 죽자 나라가 비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급히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자 곧바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단 석 달 있었어요. 네, 그 석 달에 대한 평가가 뭘니까? ‘악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의 아버지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했다고 해요. 아니, 아버지가 요시야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만 살아도 중간은 갔을 텐데, 그 전무후무한 아버지를 건너뛰고 할아버지 아몬, 증조할아버지 므낫세의 길로 그냥 딱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갑자기 악해집니까? 아니에요. 악은 석 달 만에 생긴 게 아니에요.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요? 23살. 그 석 달이 그 스물세 해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는 두 살 위의 형을 제치고 백성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뭔가 있어 보였겠죠. 위기의 나라를 맡길 준비된 대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준비된 대안이였을까요? 성경은 나의 죄를 위해 죽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디서나 나타난 현상만 보고 옳고 그르고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건에서 내 죄를 보려니까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를 늘 생각해 보는 것이 구속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그걸 생각해 봐야죠. 왜 여호아하스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그는 아버지 요시야를 날마다 보았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아버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지금 성전 수리할 때야? 우상 하나 더 부순다고 나라가 살아? 예배가 밥 먹여 줘? 군대가 있어야 살지!’ 어찌면 이렇게 답답하게 여겼을지 몰라요. 왜죠? 부자 왕자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19장에 보면은 왕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사람을 삼켰다 그러잖아요(겔 19:31). 그게 바로 여호아하스 왕을 말해요. 더군다나 평생 하나님 편에 섰던 아버지가... 자기가 안 그래도 지금 떨떠름한데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므낫세는 몇 년을 왕으로 살았죠? 무려 55년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 누가 성공자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동안에도 아버지가 답답했지만 드디어 ‘내 생각이 맞아. 아버지처럼 살면 일찍 죽네. 므낫세 할아버지처럼 해야 오래 살지. 내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은 요시야 길이 아니라 므낫세 할아버지 길이야!’

여러분, 사회 구원은 개인 구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여호아하스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아버지도 나라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세속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23년간 바로 옆에서 보았지만 아버지의 하

1) 겔19:3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나님 사랑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해석을 못 해요. 성군 아버지가 유대 편협주의와 영적 교만으로 인한 판단 미스로
느고의 애굽에 맞서다가 죽었잖아요. 느고가 요시아에게 기회를 줬던 것은 백성들은
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오직 요시아 죽은 것만 분해요. 죽고 나니 요시아만
송배의 대상이 돼 가지고 백성들은 반(反)애굽의 민족주의자들이 되어서 ‘타도하자
애굽!’ 이러면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렇게 요시아의 개혁을 보고 듣고 했음에도 그냥 구속사에서 세
속사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그게 워낙 오래 몸에 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애굽을 하기 위해서 아들 중에 가장 강성이고 애국자 같은 둘째 아들을 택한
거예요. 반골이잖아요, 지금 이 아들이.

‘사람 앞에서’ 왕이 될 준비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준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에 나라를 맡길 대안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했어요.
사람의 눈을 통과했다고 하나님의 눈까지 통과한 것은 아니예요.

이번에 대구 목세를 보셨잖아요. 근데 처음 거기서 (목세를) 치렀지만 제가 이 당회
원들하고 같이 나눔을 했는데 그날 들은 말씀으로 나눔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
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 채플에서 예전에 직분자셨던 한 장로님이 어
우! 3일 동안 전참을 하셨어요. 남자분이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끝나고 물었어요.

“아! 구속사가 들리세요?” “아니요?”

“요셉이 아니고 유대인 것이 이해되세요?” “저는 요셉이 좋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셨겠네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은 첫째, 큐티 운동을 하고자 함이고, 둘째, 지역
교회와 동참하면 좋겠고, ...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
한 것처럼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첫째, 둘째, 셋째, 구속사도 뭔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강
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너무 논리적이 아니예요. 성경 가지고 스토리로 풀어 주시니 이게 알
아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를 해맑으신 얼굴로 아주 웃으시면서~ 예, 그건 아주 좋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아내 권사님이 “목사님, 목사님 이런 말 듣지 마세요. 목사님 때문에 살아났으니
까 목사님은 그대로 하셔야 돼요.” 어우, 이렇게 부부가 짝이 되어서 서로 다른 말을 하더
라고요. 주여^^

근데 이번 주에 또 우리들교회 집사님도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도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땐 걸러 듣는다. 중립이 아닌 말씀에서 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가끔
한쪽 편이라고 느끼게 된다.” 은연중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잘 모르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
게 된대요. 우리들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도……. 제가 늘 이러면서 여

기까지 왔어요.

근데 유다도 지금 친(親)애굽, 반(反)애굽으로 짝 갈렸어요. **말씀에서 정치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유다에게 수없이 경고하시다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지금 애굽에게 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그 구원의 시선으로 이제는 좀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말씀을 맡은 자로 전 세계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시아 죽인 애굽만 나쁜 놈인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에게 먹혀들어가서 “애굽 타도”를 외치는 것이 여호아하스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나쁜 놈, 좋은 놈이 없고 예수 믿게 하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인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호아하스처럼 20년을 와서 들어도 보아도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유명한 교수님이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그러시잖아요. S대 출신이라고나 할까. 그 여전히 옳고 그름으로 분노해서 여호아하스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고, 백성들은 열광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한 그에게 주어진 것은 55년이 아니라 단 석 달이었어요. 그를 선택한 백성도 이제 멸망 기차에 같이 올라탔어요. 요시아가 죽은 지 23년 만에 지금 나라가 없어지게 됐는데, 이런 멸망할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상급이 되면 내가 성공을 붙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성공이 내 손목을 붙잡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좌에 앉았지만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이미 세상의 성공에 붙들린 종이였어요. 그는 아버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일생에 외쳤던 개혁의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구속사를 모르고는 사랑도 효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아하스 같은 효도는 말미잘 같은 효도라 이거예요.

그리고 석 달 뒤에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세상이 이제 그의 몸까지 붙잡니다.

33절이에요.

33.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립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왕하 23:33

그러면 이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우리 그 느고가 앗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요시아의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결국 그 전쟁에 져서 앗수르가 몰락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애굽, 앗수르 삼파전에서 애굽이 진 거예요. 느고가 요시아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요시아가 그 기회를) 저버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요시아 때문에 애굽이 졌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애굽에게 숨을 죽여야 하는 때인 거예요. 요시아 때문에 그 큰 나라

애굽이 지금 졌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아버지 사랑 혼자 하는 것처럼 그 3개월간에 그렇게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가... 그냥 느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폐위시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원인이 느고가 아니고 이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여호아하스의 악행 때문이라고**. 악행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 주잖아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을 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토록 몸부림치며 나라를 거룩하게 개혁하려고 했던 자기 아버지 요시아의 길을 하나도 안 따라요. 그리고 이전에 악한 왕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악행을 그 3개월 동안에 저질렀다고 해요. 왜요? 구속사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정화된 예루살렘을 하루아침에 더럽혔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 가도, 내일 망해도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요. “애굽 타도”를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할 일이 보여요.

근데 아무도 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요시아 죽인 애굽 타도에 온 힘을 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고 하잖아요.

구속사를 알면 이렇게 역사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구속사를 모르면 역사도 다 자기 맛대로 내 편, 네 편으로만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구속사를 아는 지도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이에요. 지면 서로서로 원수고, 몇 년을 그냥 서로 네 편, 내 편... 성경을 그렇게 또 읽어요. 그죠?

백성의 손이 여호아하스와 맞아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석 달 뒤에는 바로의 손이 그를 결박합니다. 믿는 백성의 손이 세운 왕을 세상의 손이 끌어내린 거예요. 여호아하스의 석 달 천하는 끝났어요. 느고는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려 립나에 가둬요. 다윗 왕조에서 왕을 이방 왕이 끌어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제 망할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유다의 왕을 유다가 정하지 못해요. 목사를 교회에서 정하지 못해요. 나라에서 정해 줘요. 뭐 독일도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남의 나라, 세상 나라 군사 기지에 딱 묶여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애굽 왕에게 벌금을 냅니다. ‘조공’이 아니고 ‘**벌금**’이요. 벌금은 잘못된 사람에게 물리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 잘못된지도,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바로가 정해요. 왕의 몸도 나라의 돈도 바로의 손에 다 붙들렸어요.

문자적으로도 여호아하스가 구속사를 모르니 당연히 역사 인식도 없지요. 그러니 그냥 눈앞에 느고가 나쁜 놈이니까 그냥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다 믿의 사람들도 “지당합니다, 전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편, 네 편’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식구밖에 모르잖아요. 다 팔이 안으로 굽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백전노장 느고에게 전해지지요.

느고가 또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요시아는 돕는 것 같더니 그 아들은 잡아가요.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잘해 주든 아니든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미워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그냥 쓰일 뿐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대왕처럼 유대인들을 포로 해방을 시켜 준 왕도 있지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잡아간 왕도 있어요. 모두모두 믿는 사람들의 훈련을 위해서 존재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다~ 미워하다~ 한평생, 앗수르를 의지하다~ 미워하다~ 한평생, 이게 역사서잖아요. 그 성경의 스토리이고 우리 인생의 스토리예요. 돈 있는 남편 미워하다~ 의지하다~ 한평생, 친정아버지 미워하다~ 의지하다~ 한평생, 전부….

오직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할 일인데, 이 쉬운 것을 한평생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고 들어도 내 인생의 지나가는 것을 보고 들어도 알아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안 돼요.

이게 여호아하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손은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통장 잔액이 나를 붙들어요. 인사권자의 눈치가 나를 붙들어요. 진단서에 적힌 병명이 내 마음을 붙들고, 끝났다고 생각한 술과 게임과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붙들어요.

붙들려 있으니 못 가는 데가 생기고 못 하는 말이 생기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종살이’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내 손목은 딱 탄 데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목 어디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캄캄한 본문에서 꼭 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일도 누구의 말씀 아래에서 일어납니까? 23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왕하23:27a

바로 느고가 왕을 가두고 벌금을 매기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죠? 세상 손이 제일 센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 손이 내 손목을 붙들어도 그 손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한 톨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큐티를 하면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면 이게 다 들어와요. 성경도 여기저기 보니까 구속사를 깨닫지를 못해요. 서론, 본론, 결론을 모르니까.

■ 적용 질문

Q.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쌓여 가는 악은 없습니까?

Q.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지금 여러분 손목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Q. 여호아하스와 백성들이 얼마나 공감되세요? 구속사가 들리세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구속사가 안 들리면 그냥 날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나라에서 싸우고.

자,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랬는데 세상의 손에 붙들려 삽니다. 붙들려 사니까 두 번째는,

2. 세상이 붙인 이름으로 삽니다(34절)

이름 너무 좋아해요. 34절입니다.

34.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_왕하 23:34

사실 첫째 아들은 ‘여호야김’인데요. 여호야김은 친(親)애굽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구속사를 해석해서 친애굽이 아니라 육신의 영달을 위한 친일파 같은 친애굽인 거예요. ‘애굽에 붙으면 지금 괜찮겠네~’ 그래서 이 아들은 그냥 ‘김’이 안 되는 또 아들이에요. 사실 백성이 택할 아들도 없었어요. 그나마 여호아하스가 낫다고 해야 할 지경이에요.

세상의 손은 붙드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느고는 이제 아주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아하스의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왜 폐위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폐한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조금 지혜가 있었으면 후일을 도모했을 터이지만, 그런 게 이제 안 보일 정도로 강성으로 교만하게 굴다가 애굽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참으로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석 달은요, 짧다면 짧지만 아주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얼마든 자기를 보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끌어내리는 것과 세우는 것은 달라요. 끌어내리는 건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세우는 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 바로가 이제 다윗의 보좌에 왕을 세웁니다. 다윗의 보좌가 애굽의 인사 발령을 받는 자리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유다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이상한 게 나와요. 이름을 고칩니다. 엘리아김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요. 엘리아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바꿔서 얻는 게 없는 개명이에요.

근데 바로는 왜 이름을 고칠까요? 이름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이름은 주인이 짓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지 자식이 부모 이름을 지을 수는 없어요. 이름을 짓는 자가 주인이에요. 훗날 바벨론 왕도 똑같이 새 왕의 이름을 고칩니다.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세상은 자기 종에게 자기가 지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도 복을 기대하면서 내 자식이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아이들 이름을 지어요. 너무 세상의 복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래 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 우리 어렸을 때 김봉수라는 작명소는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다 이름을 지어도 또 뭐 일이 안 되면 ‘아우, 이름 때문에 안 되네’ 그러고 또 개명해요.

이름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죠.

사명의 이름! 사명의 이름은 달라요. 제 손녀딸이 6.25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상기하자! 6.25!”를 기념하여 ‘상기’로 지었어요. 서로 상(相), 기억할, 기록할 기(記). “6.25 나라의 고난을 서로 기억하자. 믿음의 6대손인 거 서로 기억하자. 외할머니 믿음을 서로 기억하자. 그리고 기록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큐티와 맥이 같죠? 그리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남자면 하나도 안 물어봐요. 여자니까 “네 이름이 왜 상기야?”다 물어봐요. 이럴 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름을 지어야 돼요. 나머지 손녀도 다 같이 그날 큐티 말씀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지었어요.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이름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그걸 생각하게 돼요. 감사해요. 그 사명을 위한 이름이 최고의 이름 같아요. 우리들교회는 정말 이름 짓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만족도가 높아요. 말씀으로 지으면 이렇게 같은 이름도 없고 모든 것이 일원론이라서 성경에서 지었기 때문에 불평이 없더라고요. 개명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눈 뜨시라고)

엘리아김은 이름을 바꾸고, 그러면 끌려간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왕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아무도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애굽 편들고~ 안 들고~ 이런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오늘 제목이 여기 있어요.

아버지 요시야는 자기 무덤에 들어갔어요. 온 유다가 울었어요, 마지막이라든. 그런데 아들은 무덤 기사조차 없어요. 조상들 곁이 아니라 애굽 땅 남의 나라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이 왕을 두고 2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0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 간 자를 위하여

슬피 올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렘 22:10

‘죽은 자’는 요시야고, ‘잡혀간 자’는 이 여호아하스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예요. 울음을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요시야는 자기 무덤에 들어갔지만 살아서 잡혀간 아들은 다시 고국을 보지 못해요!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땅을 영영!! 영원히!!! 떠났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로 살다가 지옥을 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다 갖추고 지옥 갔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울고 웃어야 하는지를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여호아하스는 우리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잘되고 잘 먹고 잘살기를 원하지만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게 아니예요. 오늘 간증한 예본이가 아빠가 저렇게 탄 여자 얻어 들어서 갔지만 너무 해석을 잘하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붙여준 이름표를 달고 살아요. 학벌의 이름표, 연봉의 이름표, 직급과 지위의 이름표, 사는 지역에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실패와 병명과 사연이 이름표가 되기도 해요. 세상은 부지런히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그 이름표대로 내 값이 정해지고 나는 그 이름값을 치르느라고 그냥 등급 하나 떨어질까 봐 밤을 새우고 평판 하나 무너질까 봐 막 아닌 척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세상이 지은 이름을 내 정체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 그게 종의 방식입니다. 종은 주인이 부르는 대로 불리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잘 모르셔~” 하는 분의 계속된 나눔이에요.

“지난주 전체 계열사 그룹 컨설팅 회사가 같이 가는 워크숍을 갔다. 컨설팅 회사가 일을 너무 못해 씹고 있었는데, 컨설팅 사람이 인사하러 왔는데 약간 막무가내로 별생각 없이 요구했다. 좀 이따 직함을 보니까 이사였다. 그걸 보고 움찔했다. 또 움찔한 게 수치스러웠다. ‘이사다~ 아니다~’ 마음대로 판단한 것도 수치스러웠는데 움찔한 게 더 부끄러웠다. 뭐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을 보자마자 무시하고 골라 가면서 내 위~아래~ 분류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 수치스러웠다.”

이분은 목사인 저도 자기 자신도 아주 판단을 잘하시네요. 이런 남자분들이 많지요.

여호아하스가 의리가 많았죠. ‘여호아하스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시는 것이 증후군에서 놓임받는 비결**이에요. 죄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쌓아 놓으면요. 그게 독이 돼 가지고요. 혼자 처리해야 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얼마나 ... 이걸 정말 여러분 집안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오늘 큐티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신명기 14장 1, 2절이에요.

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बे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2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 14:1-2

하나님이 지어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자녀, 성민, 자기 기업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

이 부르시는 이름은 성경 안에만 두고, 실제 우리의 하루는 세상이 붙인 이름에 끌려갑니다. 학벌 뭐~ 그냥 평판 뭐~ 그냥.

여기서 잘 보세요! 바로는 자기 권세를 보여주려고 엘리야김의 이름까지 고쳤어요. 그때 그가 새로 붙인 ‘여호야김’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예요. 바로는 ‘내가 이 왕을 세웠다’고 과시했는데 그가 붙인 이름은 오히려 최고의 이름이에요. 아니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일제도 창씨개명을 했어요. 전부 ‘-자’자 이름을 붙여서 우리 시대 이름들은 다 영자, 순자 그냥 옥자... ‘-자’자 돌림이잖아요? 근데 일제도, 바로도 이름을 아무리 고쳐도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이름은 고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 적용 질문

Q. 세상이 내게 붙인 이름표 가운데, 어느새 내 정체가 되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Q. 나는 그 이름값을 치르느라 무엇을 하며,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그냥 나는 과장이라는 이름, 사장이라는 이름, 부장이라는 이름 ...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지금 값을 치르느라고. 내가 그 이름에 가둬 버렸어요. 우리 목사도 한 번 목사가 되면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다 같이 죄인인데 “너랑 나랑 똑같은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갑자기 목자가 되면 목자에 갇히는 거예요. 목자가 세력 부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자기는 그냥 애굽을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애굽의 손에 붙들려 살아요. 세상의 손에 붙들려 살아요. 그리고 세상이 붙여준 그 이름으로 살아가요. 성경은 그냥 딱 집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나도 세 번째는

3. 나도 세상의 감독자로 삽니다(35절)

35절입니다.

35.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_왕하 23:35

자, 33절과 34절의 주어는 ‘바로’예요. 바로가 가두고 바로가 벌금을 매기고 바로가 왕을 세우고 바로가 이름을 고칩니다. 근데 35절은요, 주어가 ‘여호야김’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다시 무대에 등장하는데요. 근데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바로에게 바칠

돈을 걷는 징수원으로 등장해요. 이 “**징수하였더라**”는 그냥 세금을 걷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몰아붙여서 짜내는’ 말이에요. 성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붙여서 짜내던 자들을 똑같은 말로 ‘감독자’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 3:7**

똑같은 얘기에요. “감독자”! 하나님이 감독자 밑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 내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월절을 지킨 지 불과 13년 만에 다윗의 자손이 자기 백성에게 애굽 감독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각 사람의 힘대로**’. 그러니까 전 국민을 짜낸 거예요. 바로는 저 멀리 애굽에 있어요. 백성이 날마다 마주친 것은 바로가 아니라 액수를 정하고 독촉하는 자기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종살이의 끝(결론)이에요. ★좋은 당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당한 대로 꼭 갚아줍니다. 회사에서 짜내 주면 집에 와서 짜냅니다. 위에서 놀리면 아래를 누릅니다. 사장이 누르면 이제 부장은 과장을 누르고, 과장은 계장을 누르고, 계장은 사원을 누르고. (할렐루야!! ^^;; 세상이 나에게 내민 고지서를 나는 가족에게 내밀어요. 밖에서는 종처럼 살고 집에 와서는 바로처럼 살아요. 제일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 제일 애굽처럼 줍니다.

제가 하늘이 열려서 저의 추함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당한 만큼 한 시집살이를 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제가 시집살이의 달인 아니겠어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사람들은 다 시킨 사람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금요일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확히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12장 30절에서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 방식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와 같이 살 때가 많아요. 짜내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나도 남을 짜냅니다. 애굽을 이기는 길은 애굽처럼 되는 것이라고 믿어 버린 거예요. 그게 종처럼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종살이를 누가 끊습니까? 유다는요, 은과 금을 걷어서 바로에게 주었어요. 돈을 냈으니까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죠! 돈을 내고도 더 심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댁의 아줌마에게 돈을 주었죠. 그런데 돈을 주니까 자유롭기는커녕 “시댁에 이르겠다”고 협박하니까 더욱 아줌마의 종이 되었어요. 딱 이해가 되시죠? 종이 주인에게 바치는 돈은 몸값이 아니에요. 종살이의 증거예요. 매인 자는 자기 몸값을 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해요(눅 9:31²⁾). 그런데 이 ‘별세’가 그냥 ‘돌아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엑소더스(Exodus)’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그 일, 출애굽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셨죠.

그런데 그 출애굽으로 나온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거꾸로 갑니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애굽 앞에 조아리고, 열왕기 끝에 가면 남은 자들마저 애굽으로 다 내려가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엑소더스-출애굽-은요, 거꾸로 감기지 않아요. 왜 거꾸로 감기지 않습니까? 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백성에게 각 사람의 힘대로 값을 내게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짜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 몸을 우리 죄값으로 내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예요.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어떨게요? 죽어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면 “뭐 어디 누가 죽어져서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져?” 요시아의 아들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 적용 질문

Q. 세상에서 눌린 것을 나는 누구에게 풀고 있습니까?

Q. 나는 가족과 지체에게 어떤 액수를 정해 놓고 내놓으라고 독촉합니까? 성적입니까, 돈입니까, 인정입니까, 순종입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누구에게 독촉해요?)

Q. 이번 주, 내가 짜내 온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돌려주겠습니까? 사과입니까, 시간입니까, 회복입니까?

항상 구속사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봐야지, 맨날 기도만 하면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미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처럼 아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못 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구속사 들리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2) 눅9:31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망해가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초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나라의 문제를 거기에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 아닌 거예요. 여호아하스처럼 달려들었다가는 더 큰 강자에 의해서 이렇게 당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스려줄 거를 믿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내 가정에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혼 가정에 our baby[아워 베이비, 우리 자녀], your baby[유어 베이비, 네 자녀]가 있는데 ... our baby 내 딸이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면.. 제가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그 딸에게 너무 욕을 엄청 들었어요. 학교 안 가고 가출하고 죽는다고 자기도 새벽 4~5시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이 딸에게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짓값을 치르는 거’라고 말을 해 줬을 때 ‘웁소이다’가 되었어요. 제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딸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딸이 때려도 맞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맞았어요. 지금도 엄마를 보면 아이들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부부 목장에서 다른 분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도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시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다 받아내셔야 해요. 짓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해요. 그게 언제까지가 될지 몰라요. 그 시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세요. 요즘엔 딸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언제 또다시 방황할지 그것도 불안해요. 그것도 제가 감수하고 가야 해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집사님도 그 짓값을 잘 치르고 가셔야 해요.

근데 이 가정은요. 외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가정이에요. 근데 아무리 배우자가 잘 못했어도... 그래서 이제 완벽한 가정이 재혼을 했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바람 잘 날이. your baby 그다음에 our baby 때문에. your baby보다 our baby가 더 힘들어. 그런데 이 our baby, your baby 있는데 친엄마가 있으니까 your baby는 그냥 20년을 그렇게 여기를 데려오면서 양육을 했는데 딱 한 번 아빠가 때리니까 그냥 믿지 않는 친엄마에게 딱 가 버렸어요. 이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얼마나 반대급부로 여기 데려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our baby도 맨날 ‘your baby 를 더 이빠해, 우리 아빠는.’ 이런 거. 이런 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our baby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엄마가 자살 시도를 했겠어요. your baby가 아니고 ‘내 새끼’ 때문에. 진짜 이 재혼 가정 힘들어요. 또 my baby(내 새끼), your baby(네 새끼)가 있는 가정의 재혼은 주제가 뭔가 하면 “네 새끼는 네가 키워!” 이게 주제예요. “난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면 또 슬퍼서 랄랄랄랄라... 어떤 경우도 가정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둘이 그림같이 아름다워도 자녀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짜 20년 동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그 (전)아내가 외도해서 이혼을 하셨는데 그 아내의 외도가 힘들어요. 지금 아내의 자살 기도가 힘들어요. 물어보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당연히 이혼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외도한 아내를 사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

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답이네요! 이렇게 완벽한 가정이지만 아빠가 너무 정답과인 거예요. 정답과.” 지금 이제 살고 죽는 얘기를 하는데 행위로 그거를 그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런 정답과는 편하지 않아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편하셔야 돼요. 사랑이 느껴져야 해요. 내 죄를 봐야 막 망가지시는 데.. 이것이 애굽으로 잡혀가지 않는 비결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어떤 경우도 토를 달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항상 구속사는 생각해 보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자살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가?’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누가 뭐래도 내가 내 죄를 보는 게 구속사라고 그러잖아. 내 죄 보는 게 구속사예요. 인간은 못 보죠.

저는 이제 상식이 있죠. 그래서 늘 앞에서 화 안 내죠. 그럼 “네~네~” 잘하죠. 그런데 “네~네~” 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죄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걸 몰랐어요. “네~네~”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집살이 고난으로 제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자사자 이렇게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거기서 내 죄를 보는 날이 왔잖아요. ★내 죄를 보게 되니까 그것도 처절하게 보게 되니까 토 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조금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다 용서해도 그 외도한 건 용서를 못 하겠네.’ 이거 아직 멀었어요. 자녀들이 속을 조금 더 썩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직 멀었어요. 외도한 거, 그까짓 그게 무슨 죄예요. 아직 자존심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행동을 하시고 다 존경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속 지금 물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막 칼을 물고 쫓아가시잖아요! ★구속사는 어떤 경우도! 내가 하늘 위에 올라 있어도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죄를 봐야 그 집에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구원이라고요. 요셉의 행위가 아니고 유다의 그 망가지는… 그거를 깨닫으니까 유다는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다하고 나하고 뭘 상관이야?’ 근데 그게 상관이 되는 걸 깨닫게 됐지요.

하여튼 가정은 지키라고요. 절대로 이혼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가 모두 지금 우리가 망하더라도 끝까지 내 죄를 보고 우리 가정을 지키면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딱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웅고 그름으로 지금 “애굽 타도하자” 뭐 이딴 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거 오늘 아셨죠?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시지만 여전히 안 들리는 분은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번(대구 목세)에도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서 다 잘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들교회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어렵게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이러십니다. 직분자가. 여러분도 어려워요? 대답 아무도 안 하시네. 어려워요? (아니요!) 아휴! 할렐루야~ 격려가 됩니다~

말씀 맺을게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세상의 손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세상이 붙인 이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감독자로 짜내고 사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로 그 지옥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이 70이라도 30이라도 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운 한 뼘 인생이에요. 때 저물어서, 그냥 날이 어두워, 내 친구는 나를 위로 못 해요. 이 세상 영광은 빨리 지나가요. 이 육신은 쇠해서 눈을 감을 때가 반드시 와요. 근데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하실 분은 생명의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게요.

♫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 새찬송가 481장 (통일 531장)

1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2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천지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주 함께 하소서
3 주 나를 언제나 찾아 주시고 주 은혜 아니 내가 사리오
주 예수 나의 구주 되시니 늘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4 나 주의 손을 꼭 잡고 가니 두려운 것 전혀 없도다
비바람 불어 파도 치노라 내 주와 함께 늘 가리라

기도 제목 드릴게요. 세상 성공을 좋아해도 내가 세상 손에 붙들려 살다가... 그것이 석 달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해 달라고. 이 세상이 너무 짧잖아요, 그죠? 때가 지금 저물었다고 하는데요. 세상이 붙인 이름이 우리를 얼마나 애굽으로 잡아가는지 이걸 알게 해 달라고. 그래서 세상의 감독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 달라고. 내일 신학생 세미나에 이 말씀이 들리게 해 달라고. 이 나라의 진영 논리가 아니고 구속사 말씀으로 해석한 그 한 사람이 좀 나오게 해 달라고. 그래도 악의 평범성이 너무 무서운 거 알게 해 주시고 생명법이 제정되고 악법이 막아지게 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유다에 요시야가 죽고 반애굽 정서가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그 훌륭한 요시야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요시야를 존경하면 요시야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본질의 개혁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요시야에 매몰돼서 요시야를 죽인 애굽만 죽이려고 온 나라가 흥분을 하니, 이게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어서 르네상스 시대로 다시 딱 돌아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애굽파, 반애굽파로 싸우는 것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여, 요시야가 안 보고 간 것이 그에게 평안이라는 말이 막 이해가 됩니다.

세상 좋아서 세상 손에 붙들려 살다가 세상이 붙인 이름의 감독자로 종노릇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애굽으로 잡혀가는 인생이 이제 될 뻔했습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에서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악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특별히 오신 분들, 아프신 분들, 너무 힘드신 분들, 자녀 때문에 정신줄을 놓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이 말씀을 듣고 신앙고백으로 드린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 좀과 동록이 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여, 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것만 있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도록 이 땅에서의 회사와 사업과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건강과 물질과 관계에 주여, 기쁨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08.30.(주일) 열왕기하 23:31-35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김양재목사님

한 계절에 불과한 석 달만에 수백 년을 이어온 이스라엘의 운명이 뒤집힙니다. 전무후무한 개혁을 행한 요시야가 죽고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이방 땅에 갇혀 애굽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종처럼 살아갑니까? 성경은 그 모습을 '애굽으로 잡아갔더니'라고 합니다. 딱 석 달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종 되었던 애굽으로 도로 잡혀갑니다. 세상의 종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1. 세상의 손에 붙들려 삽니다(31-33절)

- Q.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쌓여 가는 악은 없습니까?
- Q.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지금 여러분 손목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 Q. 여호아하스와 백성들이 얼마나 공감되세요? 구속사가 들리세요?

2. 세상이 붙인 이름으로 삽니다(34절)

- Q. 세상이 내게 붙인 이름표 가운데, 어느새 내 정체가 되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 Q. 나는 그 이름값을 치르느라 무엇을 하며,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3. 나도 세상의 감독자로 삽니다(35절)

- Q. 세상에서 눌린 것을 나는 누구에게 풀고 있습니까?
- Q. 나는 가족과 지체에게 어떤 액수를 정해 놓고 내놓으라고 독촉합니까? 성적입니까, 돈입니까, 인정입니까, 순종입니까?
- Q. 이번 주, 내가 짜내 온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돌려주겠습니까? 사과입니까, 시간입니까, 회복입니까?

“세상의 종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